SBS
www.sbs.co.kr
magazine
2001 08
커버스토리 송혜교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
다큐스페셜 「이민 2001」
프로그램 탐험 「도전! 1000곡」
줌인 이휘향

SBS MAGAZINE CONTENTS

Humanism thru Digital

IN

새 드라마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의 힘 | 맹경환 04

새 드라마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를 통한 남자들의 꿈과 사랑 | 김진희 10

새 프로그램 다큐스페셜 「이민(移民) – 2001」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 | 신완수 16

줌인 「여인천하」의 이휘향
또 다른 여인천하를 꿈꾼다 | 강호준 20

포커스 「여인천하」의 내관과 상궁들
연륜 있는 연기로 인기몰이에 한 몫 | 이지혜 22

커버스토리 탤런트 송혜교
한여름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그녀 | 윤성희 26

스포트라이트 「아버지와 아들」의 장욱제
초발심으로 TV 앞에 선 그때 그사람 | 최성은 30

2001 08

프로그램 탐험 「도전! 1000곡」
세대를 초월한 일요일의 즐거움 | 이은주 32

라디오 세상 LOVE FM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
"편안하지 않습니까?" | 류혜인 36

라디오 세상 POWER FM 「정지영의 Sweet Music Box」
고단한 몸에 달콤한 꿈을 초대한다 | 박현주 37

이 사람 영화전문기자 오동진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 | 이무영 38

케이블 속 여행 「SBS 골프 빠제로배 도전 7기 대회」
도전하는 골퍼는 아름답다 | 박미애 40

SBS 미주 위성방송 개국
고국과의 연계에 견인차 역할 43

클릭! 인터넷 44

TV & RADIO 편성표 46

SBS 미디어넷 8월 하이라이트 49

SBS 영화 특급 50

OUT

표지설명
한여름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탤런트 송혜교. 때묻지 않은 순수함만으로 충분한 그녀가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에서 미혼모 아닌 미혼모 역을 맡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자로 변신 중이다.
사진 / 김연식

SBS magazine 2001년 8월호
통권 제117호 2001년 8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송석형, 부주간 / 이근용, 기획 / 남지혜,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780-0006 ● 편집 · 디자인 / design be, 전화 3446-7033 ● 스캔 및 출력 / 대성출력, 전화 544-5665 ● 인쇄 / 동양인쇄, 전화 838-3311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c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SBS 대국민 약속
물은 생명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의 힘

사람에게는 정말 수호천사가 있는 것일까?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는 진실한 사랑이
바로 수호천사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돈과 권세를 쫓는 두 사람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두 사람.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들의 치열한 싸움과 안타까운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극본 | 이희명, 연출 | 김영섭
8월 1일부터 수 · 목요일 밤 9시 55분 방송

수호천사

「수호천사」. 드라마 제목만 보면 고아 소녀를 말없이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를 생각할지 모르겠다.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의 주인공이 고아 소녀란 점은 동화 '키다리 아저씨'와 같다. 그러나 「수호천사」에는 정작 '수호천사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수호천사」의 '수호천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다.

「미스터 큐」, 「토마토」 등 히트작을 가지고 있는 작가 이희명은 기획의도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고단하고 힘든 세상, 외롭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지켜주는 것은 돈과 권세라기 보다는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수호천사'라는 믿음에서 이 드라마는 출발합니다."

선과 악, 그 안에 피어나는 안타까운 사랑

드라마는 '돈과 권세'를 쫓는 두 사람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두 사람, 이렇게 대비되는 주인공 4명의 치열한 싸움과 엇갈리고 안타까운 사랑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드라마의 중심은 고아 출신의 다소(송혜교 분). 천안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란 의지할 곳 없는 고아지만 밝고 활달한 성격. 하지만 약지 못해서 덤벙거리고 둔한 면이 있는 인물이다. 어렵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순조로와 보이던 그녀의 인생은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정은 언니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꼬인다. 만삭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정은 언니가 죽기 직전 남기고 간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미혼모 아닌 미혼모가 된 것이다.

지난해 KBS 「가을 동화」에서 청순가련한 소녀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송혜교는 SBS가 키워낸 배우다. 「순풍 산부인과」를 통해 얼굴을 알렸고 「가을 동화」에 출연하게 된 것도 사실 「순풍 산부인과」에서 쌓은 연기력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처럼 친정을 찾은 송혜교는 "역경과 맞서는 다소는 강인함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드라마를 통해 연기력을 갖춘 배우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송혜교는 틈만 나면 극 중 다소의 아들로 나오는 아역배우와 놀아주며 맡은 역할에 몰입하고 있으며 함께 출연하는 김민종, 김보성, 윤다훈이 사석에서 펼치는 '애정공세'에 행복해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전언.

다소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인물은 하태웅(김민종 분). 우리음료 강회장(이순재 분)의 사생아로 버려진 뒤 유흥업소를 떠도는 마술사인 외삼촌(장항선 분) 밑에서 자랐다. 어려운 환경 탓에 고교 졸업 학력이 전부지만 활달하고 대담한 성격. 다소와는 두 번의 우연한 만남으로 알게 된다. 첫번째는 태웅이 가짜 대학 입학사진을 찍다가 진짜 입학식에 참석한 다소를 스쳤고, 두번째는 무작정 상경한 태웅이 우연히 다소의 집에 셋방을 얻어 '동거'를 하면서부터.

태웅과 다소가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두 사람이 모두 우리음료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다. 태웅은 3년 전 친아들을 잃고 허탈해 하던 강회장의 도움으로, 다소는 태웅의 추천으로 우리음료에서 일하게 된다. 첫인상이 거칠고 무례했지만 태웅에게서 진실되고 따뜻한 면을 발견한 다소는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그 감정은 사랑이 된다. 태웅도 다소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이들이 사랑이 이루기에는 훼방꾼들이 너무 많아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들 것 같다.

처음으로 악역 맡은 윤다훈의 깜짝 변신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한 번에 손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은 선악구도를 분명히 하고 젊은 남녀들간의 사랑을 복잡하게 얽어놓는 것이다. 「수호천사」도 그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다소와 태웅이 선의 편에 서 있다면 악을 대변하는 인물들은 강세현(윤다훈 분)과 홍지수(김민 분)이다. 이들은 일과 사랑에서 다소 · 태웅 쪽과 얽혀 있고 대립한다.

우리음료 기획실장 강세현은 정말 지독한 악역이다. 이복형인 강회장 밑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 온 탓에 복수심과 야망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잡는다. 강회장의 친아들인 준호를 죽게 만든 것도 그이고, 태웅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는 인물도 그다. 데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다는 윤다훈은 캐스팅이 확정되고 한 달 반 만에 10킬로그램을 감량하면서 악역을 위해 몸을 만들어 봤다. "피 한방울 안 나는 야비한 인물이라 「세친구」의 바람둥이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그는 "「세친구」가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수호천사」는 첫 번째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윤다훈의 연기 변신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기를 지켜보는 제작진의 입에서는 "「세친구」에서 그렇게 웃기던 이 배우가 원래 악역 전문 아니었어?"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고 이구동성이다. 연출자 김영섭 프로듀서는 "첫 회부터 시청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리음료 회장 비서실의 대리 홍지수는 이희명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아름다운 찻잔 속에 감춰진 드라이아이스같은 여자"다. 아름다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느낌의 김을 보고 찻잔을 만질라치면 그 차가움에 놀라고 만다는 것.

어려서 가난 때문에 많은 수모를 겪었던 홍지수에게는 사랑도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회사의 후계자 강세현을 일찌감치 남편감으로 찍어둔 터. 그러나 홍지수는 그저 미워할 수만은 없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한없이 강해 보이지만 태웅을 알게 된 뒤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운명처럼 사랑의 감정을 느껴버리고 만다.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 세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진지함 속에서 튀는 즐거움

4명의 주인공만 놓고 보면 「수호천사」는 진지하기만 한 드라마

처럼 보인다. 하지만 '코믹 릴리프'(comic relief)가 동원되면서 분위기는 이완된다. 드라마의 양념 역할은 김보성, 최재원, 김승욱, 조미령 등에게 맡겨졌다.

10명과 싸워 10명 모두 때려 눕힐 것 같은 김보성은 드라마에선 언제나 맞기만 하는 순둥이 오순동 역이다. 단순무식한 건달이지만 순정 만화나 슬픈 영화를 보고 울기도 잘한다. 97년 「별은 내 가슴에」의 팥쥐 스타 조미령은 남자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섹시녀' 여은주로 출연한다. KBS 「태양은 가득히」에서 잠깐 외도를 하기는 했지만 코믹 조연이 전문인 최재원은 강세현의 심복 나홍만 역. 연극배우 출신으로 영화 「반칙왕」, 「별은 내 가슴에」 등에서 간간이 얼굴을 내비쳤던 김승욱은 모처럼 비중 있는 역을 맡았다. 여성적인 데다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음료개발 연구원 천수만으로 여은주를 사이에 두고 나홍만과는 시종 아웅다웅하는 사이다.

김승욱은 김영섭 프로듀서가 94년 MBC 아침 드라마 「큰언니」의 조연출을 담당할 때 TV에 첫 출연하면서 김프로듀서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어왔다고한다. 당시 「큰언니」가 데뷔작이었던 배우는 설경구, 이성재 등. 이제 김승욱만 뜨면 당시 새내기들은 모두 뜨는 셈이다. SBS

글 | 맹경환 국민일보 기자, 사진 | 김연식

수호천사

김영섭 프로듀서가 밀하는 「수호천사」

"현실에 바탕을 둔 정통 드라마"

김영섭 프로듀서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한국영화아카데미 3기(87년) 출신으로 충무로에서 박철수 감독의 조감독으로 5년을 보냈다. MBC 「제3공화국」 조연출로 TV쪽으로 무대를 옮겼고 SBS 「코리아 게이트」의 각색 · 극본, 「그것이 알고 싶다」, 「송지나의 취재파일」 등을 연출했다. 이후 「착한 남자」, 「지금은 사랑할 때」, 「짬뽕 아리랑」 등 아침 드라마와 단막극을 주로 연출해왔다. 미니시리즈는 이번이 처음.

– 「수호천사」는 어떤 드라마인가

정통 드라마다. 다만 미니시리즈에서 밝고 즐거운 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가벼운 캐릭터들로 보완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는

사생아로 버려진 건달과 고아 출신의 미혼모. 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모습에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고 난 뒤 희망을 가지고 남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부자관계를 통한 남자들의 꿈과 사랑

아버지, 웬지 부모이면서 어머니와는 달리 거리감마저 느껴지는 단어이다. 하지만 아버지야말로 가장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이자 중심축임에 틀림없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모처럼 드라마에서 선보인다. 바로 주말 극장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관계 속에서 진정한 남자들의 꿈과 사랑이 펼쳐지는데 신선한 에너지의 신인들과 노련미 넘치는 중견급 연기자들의 조화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극본 | 박진숙, 연출 | 김한영, 제작 | SBS프로덕션, 토 · 일요일 밤 8시 50분 방송

IMF로 온 나라가 휘청거릴 때 문화계 전반에 '아버지'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김정현의 베스트셀러 '아버지'를 시작으로, 아버지들의 애환을 다룬 소설과 영화가 앞다투어 선보였고 그 참에 '가부장적 권위'의 표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아버지들의 이면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첫 선을 보인 SBS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꺽정」, 「파도」 등을 제작한 김한영 프로듀서와 「마당 깊은 집」, 「아들과 딸」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박진숙 작가.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아니 잊혀지거나 또는 숨겨져 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드라마의 달인들이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댄 덕분일까?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특히 신선한 얼굴의 신인 연기자들과 노련미를 자랑하는 중견 연기자들이 앙상블을 이루어 더욱 드라마가 풍성하다는 평이다.

아버지가 중심이 된 가족 드라마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아버지, 강태걸(주현 분).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다. 드라마는 천하에 두려울 게 없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한 구석 공허해 보이는 그의 내면을 따라, 어버이의 자식 사랑과 중년 남성의 사랑과 우정을 비추어 낸다.

"사실 모자, 모녀 관계를 다룬 드라마는 많았죠. 그런데 생각 외로 인상적인 부자, 부녀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청자가 주부이고 작가가 여성이다 보니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감정표현이 없는 집 밖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풍토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게 김한영 프로듀서의 생각. "가족간의 부딪힘이나 미묘한 감정들을 잡아내야 하는 홈 드라마로선 그런 아버지가 중심이 되기 어려웠

「아버지와 아들」은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아버지의 자식 사랑과 중년 남성의 사랑과 우정을 비추어 낸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남자들의 꿈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아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다루면 그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의 삶, 아빠의 청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드라마란 이야기이다.

더불어 드라마는 그의 네 아들을 쫓는다. 수재에 가족들 모두를 감싸안는 마음을 지닌 맏아들인 일두(최철호 분), 어머니의 죽음을 가슴에 담고 사사건건 아버지와 부딪치는 반항아적 기질의 둘째 재두(김명민 분), 냉철한 야심가로 후에 세속적인 욕망에 자신을 내던지는 삼두(이종수 분), 시인을 꿈꾸는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 막내 종두(이현제 분). 자신의 개성만큼이나 다른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아들들은 아버지와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극 전개의 주춧돌이 된다. 벌써 일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드라마의 한 막이 시작됐다.

"여성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대부분의 드라마와 달리 「아버지와 아들」은 남자들의 심리와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똑같은 사랑이야기라도 무엇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 김한영 프로듀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남자들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해보겠다는 것. 평소 남자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시청자라면 끝까지 이 드라마를 지켜보면 되겠다. 우리들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아들들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모르고 지나치던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색다른 맛을 전하는 지고지순한 순애보

아무리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라곤 하지만 여자들이, 그들이 엮어가는 사랑의 이야기가 빠질 순 없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펼쳐나가는 사랑의 모습이 사뭇 촌스럽다는(?) 사실. 재두를 사랑하는, 청순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은주(김정은 분), 자신의 야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지만 나중에 삼두를 상대로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는 천방지축 강자(한채영 분), 사랑하던 일두를 잃고 방황하다 막내 종두의 순수한 사랑으로 새 삶을 찾는 명진(최지연 분) 등. 요즘 세태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애잔한 사랑이 세파에 지친 현대인들의 향수를 은근히 자극하며 드라마에 색다른 맛을 더한다.

뿐만이 아니다. 드라마의 배경과 이웃들도 고전적(?)이라 오히려 신선한 느낌. 강원도 춘천의 변두리 동네, 과수원, 양어장, 물망초 다방… 마치 내 곁에서 살아숨쉬는 듯한 이웃들과 탁 트인 그림같은 자연이 숨쉬기조차 힘든 도시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어딘가 시골스러운 냄새가 TV에 난무하는 도시스러움을 지워버리고 잠시나마 시대를, 지금의 고민을 잊게 만든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시대극이 아니면서도 요즘 보기 드문 캐릭터와 사랑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드라마 속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간다. 그곳에서 우린 천천히, 느긋하게 숨쉴 수 있다.

신선한 에너지와 노련미의 조화

특이하게도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젊은 연기자들은 거의가 신인급이다. 일두 역의 최철호와 다혈질적인 둘째 재두 역의 김명민, 성공지상주의자 삼두 역의 이종수 정도가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로 알려진 얼굴. SBS 6기 출신인 김명민은 대본을 보자마자 OK 했다고. 아버지와 똑같은 성격이기에 더욱 어긋나고 마는 반항아 역할이 연기하기 쉽지 않다는 그는 연기 외적으로도 어깨가 무겁다고. "신인 연기자와 중견 연기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라서요." 그렇지만 워낙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걱정 없다고. 자신의 배역을 가장 멋있는 역이라고 표현하는 이종수. 제대한 후 처음 출연하는 드라마인 만큼 남다른 각오를 보인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세련된 이미

드라마의 배경이 강원도 춘천 언저리의 아름다운 동네라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에서 여유 있게 숨쉴 수 있다. 또한 드라마를 끌어나가는 김명민, 이종수, 이현제, 최지연 등 에너지가 넘치는 신인들과 장욱제, 김영옥, 박혜숙, 선우은숙 등 노련미 있는 중견급 연기자들의 조화가 감칠 맛을 더해준다.

지에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과감하게 변신한 한채영이 보태진다. "강자로 변신한 제 모습에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연기자라면 이 정도의 변신은 욕심 낼 만하지 않나요?"

이현제와 최지연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인. 차분한 외모를 지닌 최지연의 경우 명진이 자신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연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깊은 눈빛 때문에 캐스팅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제작진의 귀띔.

"외모보다는 연기력으로 인정 받고 싶다"는 이현제 역시 처음 맡는 주연이라 부담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노라고 전의를 불태운다. "여리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라 시청자들의 연민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이 드라마엔 신인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넘친다. 그 에너지가 중견급 연기자들의 노련미와 함께 드라마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듯. 중견 연기자와 멋진 앙상블을 이루며 점차 성장해가는 신인 연기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이 드라마를 보는 쏠쏠한 재미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 같다.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편안한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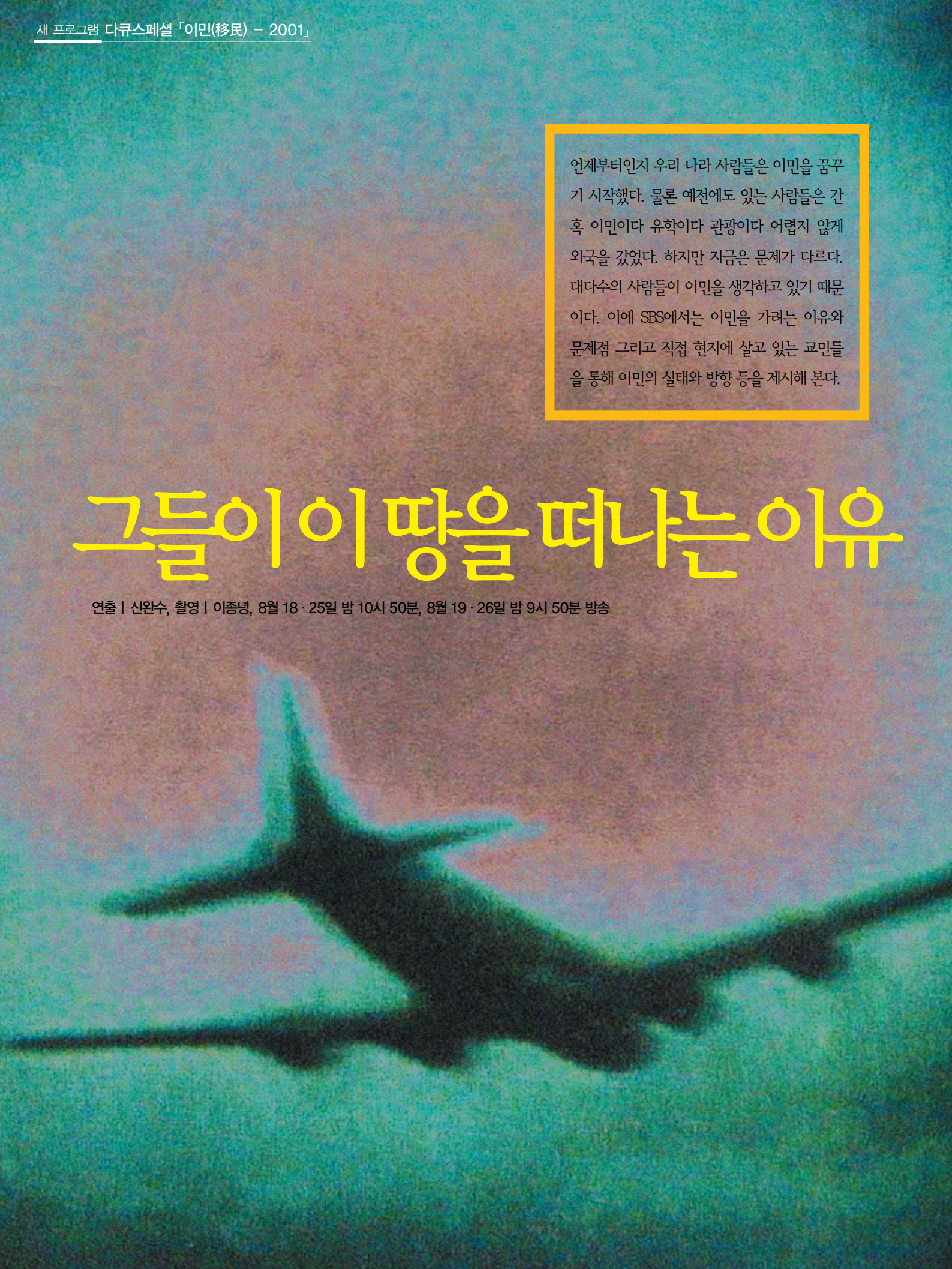
TV를 켜면 넘치는 게 드라마다. 그러나 억지스럽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드라마는 흔하지 않다.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또 한 편의 숫자만 채우는 공해는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연출자의 말로부터 이 드라마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읽는다면 지나친 말일까? 아니, 시청자들은 굽이굽이 흘러가는 드라마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빠져들면 될 것이다. 한고비에서 웃다가 다음 고비에서는 울면서, 그렇게 자연을 느끼고 삶을 느끼면 되겠다. **SBS**

글 | 김진희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민을 꿈꾸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에도 있는 사람들은 간혹 이민이다 유학이다 관광이다 어렵지 않게 외국을 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다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BS에서는 이민을 가려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직접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통해 이민의 실태와 방향 등을 제시해 본다.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

연출 | 신완수, 촬영 | 이종녕, 8월 18 · 25일 밤 10시 50분, 8월 19 · 26일 밤 9시 50분 방송



Scene # 1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이민 유학 박람회. 단 이틀간의 박람회 기간에 4만 6,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개장 첫날 일찍부터 준비한 자료가 동이 나버리는 등 예상 밖의 성황에 이민 알선 업체들의 모임인 주최측이 몸살을 앓았다.

Scene # 2 같은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음식점. 인터넷을 통해 모인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갖는 저녁 모임이다. 오늘 화제는 지난 달 캐나다 캘거리로 떠난 회원 가족의 이민 보고이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첫 차로 일제 '캠리'를 샀다. 생각했던 것보다 집 월세가 만만찮고 그나마 구하기도 어려워 아직 모텔 신세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메일로 날라든 소식에 회원들의 얼굴은 심각하다. 현재 인터넷 상에 올라 있는 이런 이민 준비 모임은 백여 개가 넘고, 그 구성도 전국적이다.

Scene # 3 지난 5월, 캐나다 벤쿠버의 이민 이삿짐 창고. 보름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던 강O덕(43세)씨 일가의 이삿짐이 도착했다. 그러나 강씨 일가는 캐나다 이민 당국의 강제 추방으로 서울로 돌아간 뒤였다. 캐나다 도착 후 인터뷰 과정에서 '전과가 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한 게 원인이었다.

캐나다 벤쿠버 Ridgeview 초등학교의 한국 학생들과의 집단 인터뷰.

시드니 Campise 코리아 타운 한국식품점. 라면에서 칫솔까지 서울 수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이 상표까지 그대로이다.

책임자로 있었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휘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사면을 받았고 전과 기록도 말소된 상황이었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도 말끔했던 전과를 고백(?)한 이유에 대해 강씨는 "거기 가서는 거짓말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금 이민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밟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주기 기대하면서….

Scene # 4 지난 6월, 뉴질랜드의 오크랜드. 김O미(28세)씨는 지난 두 달간 숙식을 제공받고 일하던 한국인 농장을 나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농장 일을 찾고 있었다. 서울에 남편과 세살박이 딸이 있는 그녀가 석달짜리 방문객 비자로 뉴질랜드로 온 것은, 이민을 두고 가족간에 갈등이 있은 뒤였다. 그녀는 남편과 딸이 관광비자로라도 뉴질랜드에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대학을 나온 그녀가 그럴 경우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에도 이민을 오는 다섯 가족이 탔고 그 중 세 가족은 영주권을 받지 않은 무작정 이민이었다고 확신했다.

Scene # 5 같은 6월, 호주의 시드니. 중학교 2학년의 딸, 초등학교 4학년의 아들을 유학시키러 온 유O혜(41세)씨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시드니 관광을 나섰다. 이제 겨우 아이들 학교를 정하고 세 식구가 머무를 집도 구한 뒤였다.

"애가 반에서 상위권에 들어야 하는데, 딸애도 저도 자신이 없어요. 등수 외의 애들은 책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사람 취급이나 해요? 그렇치 않아도 OO일보에서 맨날 한국 교육이 큰일났다고 난리니, 우리 엄마들 불안해서 어떻해요…. 여기서 두 달 살고, 대전 가서 한 달 살고, 제가 그래야죠. 애 아빠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판 엑서더스

얼마 전 한 시사 잡지에서 한국인 도시 중산층 10명 중 4명 이상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했고, 7퍼센트인 14명 중 1명은 실제로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43퍼센트에 불과했다.

자녀 교육 때문이든,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이나 부정부패 때문이든, 맑은 물과 공기를 찾아서든 이민은 지금 우리 사회 중심축인 중산층 사이에 핵심적인 화두가 돼 있는 셈이다. 작년 한 해 이민을 떠난 이들은 모두 1만 5,000여 명. 그들의 대다수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행선지로 택했다. 현지에서의 취재로는 그 숫자 못지 않은 한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뉴질랜드 Aukland 교외의 사립학교 Kristin School의 한국 학생들.

아니면 유학생, 또 다른 명목으로 사실상의 이민을 떠나와 있었다.

과연 이민은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환경, 더 인간다운 삶을 찾는 이들에게 마땅하며 유일한 해답인가? SBS 다큐스페셜 「이민(移民) - 2001」은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20일에 걸친 사전 취재, 50일이 넘는 현지 촬영 중 제작팀은 수많은 이민 사전 답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직장에 휴가계를 내고 구경 삼아 왔다는 30대부터 이번에 살 길이 뭔지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진작부터 불안했던 직장을 떠나 온 가족을 데리고 나선 40대까지. 이민에 대한 이들의 의지나 결의는 차이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유, 이민 대상지로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이유는 거의 일치했다.

거리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이웃은 물론 자신조차도 돌아 볼 겨를이 없는 이 땅의 무한 경쟁, 그 경쟁에서 내가, 내 아이가 탈락하리란 불안이 그들이 이 땅을 떠나려는 이유라면 뒤처진 사람도 존중받는 사회, 교육 환경, 숨쉴 수 있는 공기와, 나와 가족을 위한 여가, 나라와 사회가 보장하는 미래가 그들이 그곳으로 가려는 이유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 지치고 불안하여 피안의 땅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 얼마 전 한 시사 잡지에서 한국인 도시 중산층 10명 중 4명 이상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했고, 7퍼센트인 14명 중 1명은 실제로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43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75.3퍼센트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를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상당한 대가를 필요로 하는 이민

이민을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민을 받으려는 나라가 있어야 하고 그가 가서 터잡을 환경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왜 이민을 받으려 하는가? 앞에서의 조사 결과 이민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75.3퍼센트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를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 세 나라는 똑같이 아직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수반으로 하는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사회이고, 방대한 국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미국과 달리 상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평등 · 복지를 이념으로 하는 나라들이다. 세 나라가 지향하는 그 땅에 사는 누구에게든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의료 · 교육 · 환경 · 복지의 유지는 당연히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정도 이상의 비효율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거기다 방대한 국토에 적은 인구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경제에 일정한 제약을 강요한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회란, 그 결과를 차지할 몫도 크지 않을 것이란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당신이 한국에서 잘 교육받고 좋은 직업 · 직장에서 잘 닦은 기술이 있다면 그리고 웬만한 자금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오시오. 와서 당신의 자금과 기술,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당신의 의료 · 노후를, 당신 아이를 가르칠 교육을 담보할 세금을 내어 주시오. 그리고 당신 옆집에 사는 존 할아버지, 메리 할머니가 인간답게 살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고맙겠소. 그러잖아도 요즘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가 막 은퇴해서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기에 나눠줘야 할 손은 너무 많고 세금 낼 사람은 적어서 우리도 큰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호주 시드니 Campise 코리아 타운의 Campsie Fish market. 주인 안용길 씨는 7년 전에 영주권 없이 무작정 이민, 현재는 장기사업비자를 받았다.

호주 시드니 Campsie 코리아 타운. 70년대 월남 패망후 건너온 우리나라의 호주이민 1세대들이 이룩한 한국인 촌.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시드니의 벼룩시장.

뉴질랜드의 이 닭농장은 약 5억원 정도 투자됐고, 월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시드니 인력시장의 새벽 6시. 불법체류 한국인과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다.

분 중 한두 분이야 아플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이 열심히 내주시면 그거야 문제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만큼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죠? 이쪽 예의범절, 사람사는 도리도 잘 모를테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넥타이 메고 사람부리는 직업을 찾으시긴 힘들겠네요. 이곳에는 직업 가지고 사람 차별하거나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는 마세요. 사실 그런 자리는 우리끼리도 차지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말리진 않겠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면 2세나 3세에 가서 변호사든 의사든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저희 조상들도 처음 이민와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얼굴색 다른 사람들이 자꾸 와서 싫다는 이도 있지만, 저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 고마워요. 얼마 전까지 저녁 6시 넘으면 담배 한 갑을 살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돈 많이 드는 우리 교육 재정이 힘들거든요. 어디에 그거 도와줄 유학생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교육 내용이야 여기가 좋찮아요."

위험을 동반한 필연적 생존전략

4부작 다큐멘터리 「이민-2001」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려 한다. 서울을 떠났으나 현지에서도 발을 딛지 못하고 태평양을 떠도는 이민자들, 기사 둔 중역, 가정부까지 둔 사모님에서 억척스런 밤샘 청소부로 변신해 함께 뛰는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보다 더 큰 것을 배우는 아이들, 내가 누군데? 선뜻 할 일은 마땅찮고 "골프, 그것도 매일 해보슈,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을 되뇌이는 사람들, 마천루의 최고층,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부회의 멤버로까지 출세했으나 문뜩문뜩 자신의 노란 얼굴이 낯설기만 한 이민 2세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가뜩이나 좁은 땅, 넘치는 인구,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사와서 유일한 자원인 사람들 손으로 만들고 다시 세계로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어디서 무엇을 사오고 무엇을 어디의 누구에게 파느냐가 생존의 조건이라면 사고 팔 시장과 사람들을 알고 포섭하는 일, 즉 세계화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가뜩이나 좁은 땅, 넘치는 인구, 어디서 무엇을 사오고 무엇을 어디의 누구에게 파느냐가 생존의 조건이라면 세계화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 뜻에서 이민, 또는 유학으로 세계로 나가 거기서 뿌리박고, 또 누구는 돌아오고 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세계화의 교육비일 것이다. 즉 이민이나 유학은 오늘날 우리의 필연적인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고려 통일 이후 한반도란 캥거루 주머니 속으로 움추려들어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주머니 밖으로 나가는 세계화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몇몇이라도 이민으로 유학으로 저 초원으로 나서고 거기서 뿌리박고, 또 누구는 돌아오고 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세계화의 교육비일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들이 훈련된 인력자원이고, 얼마간의 외화를 들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민 또는 유학은 오늘 우리의 필연적인 생존전략일 것이다.

투자나 모험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들 중 몇몇은 필연적으로 그 답답했던 어미 캥거루 주머니를 떠나온 것을 내내 후회하며 목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풍요로운 초원에서. 그렇다면 오늘 이민을 보는 우리의 과제는 사람이든 돈이든 투자에 따른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이 투자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 일 것이다.

뿔뿔이 가나안 땅을 떠나 유랑 이민을 떠났던 유태인들이 2,000년도 지난 지금, 사라졌던 모국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몇 백 년 전 만주족의 청나라를 피해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한 화교들이 오늘날 중국 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SBS

글 | 신완수 「이민-2001」 프로듀서

또 다른 여인천하를 꿈꾼다

문정왕후와 경빈의 대립이 주를 이뤄온 「여인천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상권을 장악해 또 다른 여인천하를 꿈꾸는 거상 장씨가 능금과 함께 문정왕후와 난정에게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신비로운 인물, 거상 장씨 역은 이휘향이 맡아 열연한다. 남장을 서슴지 않는 여장부 장씨와 능금, 여기에 문정왕후와 난정의 한판 대결이 자못 기대된다.

SBS 대하사극 「여인천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다. 하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이다' 라는 명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문정왕후와 경빈의 대립이 주를 이뤘다면 7월 30일부터 거상 장씨가 합류, 난정과 능금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는 거상 장씨 역은 이휘향이 맡는다. 미모와 숨겨진 과거를 가진 신비로운 인물인 장씨는 명나라의 정세 변화로 인해 조선으로 나오게 된다. 그가 찾은 곳은 백치수의 남소문 객주. 이곳 남소문에서 장씨는 백치수와의 오랜 인연으로 능금이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독선생을 맡게 된다. 장씨는 능금을 '여성답게' 가 아닌 '사람답게' 교육한다. 장씨와 능금은 많은 점이 닮았다. 이재에 밝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장씨는 기존의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역할이다. 조선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녀는 그 시대의 여인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사고력과 재물, 그리고 동시에 명나라 조정의 실권자였던 환관들과의 연줄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남장까지도 서슴지 않는 기개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여장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극을 몇 편 해본 건 아니지만 이번 역할은 예전의 그것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여장부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난감하고…. 지금의 문정왕후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한 역할이라 그것에 맞서

이 휘 향

는 장씨의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감하고. 하지만 무엇에서든지 그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연기는 사극 연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가 맡은 역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거죠. 기본을 착실히 닦은 다음에야 현대극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문정왕후의 임신으로 수세에 몰린 경빈이 거상인 장씨와 손을 잡고 재기를 꿈꾸나 문정왕후와 난정에 의해 축출된다. 이 과정에서 경빈과 손잡았던 장씨는 시련을 겪게 되고, 이후 반(反) 문전왕후 세력에 자금을 대면서 새로운 갈등의 축을 이룬다.

앞으로 「여인천하」는 장씨의 지도를 받은 능금이 조선의 금권(金權)을 주무르는 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당시의 상업 활동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력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장씨가 능금을 앞세워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문정왕후와 난정에게 어떻게 맞설지, 그녀들의 한판이 기대된다. 당시의 정치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해주던 경제상황까지도 세심하게 알아볼 수 있는 SBS 대하사극 「여인천하」. 당대 최고의 여인들이 펼칠 숨막히는 내면의 싸움이 볼만하다.

과연 장씨는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문정왕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앞으로의 「여인천하」가 기대되는 것은 이휘향 때문이 아닐까 싶다. **SBS**

글 | 강호준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연륜 있는 연기로 인기몰이에 한 몫

최고 권력의 핵심인 임금 주위에는 피와 힘을 나눈 친인척들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전면에 나서 역사를 뒤흔드는 이들 외에 또 다른 힘을 형성하여 왕실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들이 상궁들과 내관들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불행한 인간상으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힘 또한 법도가 엄한 궁궐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인천하」가 권력을 놓고 갖가지 암투를 벌이는 요즘, 직접적으로 힘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한결같은 충성으로 임금과 중전, 대비를 모시는 상궁들과 내관들이 드라마의 감칠맛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어 화제다. 그들은 모두 스타는 아니지만, 평생을 연기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베테랑 연기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끈다.

'연기는 천직' – 대전 내관, 이종만

중종의 충성스러운 대전 내관 역을 맡고 있는 이종만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극에서 태조대왕을 비롯해 역대 조선조 임금을 모셔온 실력파 연기자다. 중종은 그가 모신 임금 가운데 세 번째 임금이다. 드라마라는 공간 속에서 그는 여러 임금과 내관이라는 관계를 묘사했을 뿐이지만, 지금도 깍듯이 '모셨다'라는 표현을 쓴다. 일에 대한 그의 애정이 진하게 느껴진다.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연기자의 길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국립극단 1기생으로 출발하면서 그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때를 인생의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기회를 잡은 이후 벌써 4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외국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유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그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연기자의 길은 내 천직이지요. 그러니 떠날 수 없지요. 연기가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쑥스럽고, 뭔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역이든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상궁 역할만 일곱 번째' – 대전 큰 상궁, **서영애**

「여인천하」의 큰 상궁 또한 대전 내관 못지 않은 힘으로 중종의 일상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마마님이다. 그러면서도 내전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까지도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경빈에게 달려가 알려준다. 그녀는 임금을 모시고 있지만 경빈의 사람인 것이다. 이를 못마땅해 하는 문정왕후가 그녀를 중궁전으로 불러 들여 호통을 치지만 종아리를 직접 내리 치지는 못한다. 대신 베개에 대고 회초리를 휘두른다. 이는 아무리 중전일지라도 대전 큰 상궁이라는 위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큰 상궁 역은 1970년 MBC 성우 4기로 출발해 지금까지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서영애 씨가 맡았다. 그 동안 사극 속을 종횡무진하며 살아온 그녀, 상궁 역할만 해도 이번이 일곱 번째란다.

"예전부터 한복 입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한복 맵시가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로 사극에 캐스팅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드라마에서 한복 집 주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매 회마다 다른 한복을 입고 출연해서 의상비가 꽤 들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한복 실컷 입고 뽐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고 명예고 다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자리잡은 연기세계' – 중궁전 엄상궁, **한영숙**

문정왕후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도, 상궁의 우두머리로서 넘볼 수 없는 품위와 권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엄상궁, 한영숙 씨는 요즘 자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어리둥절하다. 인터넷에 팬클럽까지 생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 없는 문정왕후의 문턱을 끝없이 넘보고 무너트리려는 밉살맞은 후궁들의 손아귀로부터 꿋꿋하게 중전을 지켜내는 그녀의 모습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을 거침없이 파고 들었다. 엄상궁이 자신을 향해 내리치는 경빈의 팔목을 휘어 잡으면 그날 밤 팬들이 차려놓은 인터넷 카페가 들끓는다. 중궁전의 방문을 얼른 열어 들여보내주지 않고 뜸을 들이며 경빈의 신경을 건드리면, 몇 날 며칠 인터넷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쏟아진다. 그들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에 그녀는 행복하다.

"개인적으로는 연기자의 길을 가기 위해 생의 한 부분을 희생해야 할 경우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꾸준히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맙고요,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그 동안 엄한 시어머니, 여왕, 대왕대비 등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준 그녀는, 실제로는 부드러운 성격이다.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강한 이미지를 소화해 오다 보니 다소 강한 면이 생긴 것도 같단다. MBC 성우 4기로 출발해 TV는 물론 라디오 드라마, 영화 더빙 등 장르를 넘나들며 오늘에 이르렀다니, 그녀의 연기세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내면에 자리잡고 있을지 알만하다.

'전업주부에서 연기자로' – 대비전 조상궁, **배미자**

자순대비전의 조상궁은 왕실 최고의 어른을 모신다는 권위를 가지고 궁중의 위계질서를 한 손에 거머쥔 마마님이다. 조상궁 역은 한국방송공사 탤런트 2기생으로 출발해 연기자의 길에 들어선 배미자 씨가 맡았다. 그녀에게는 다른 연기자들과 다른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다. 연기자로 활동하다 결혼 뒤 16년이나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다는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그녀를 가정에 고이 모셔둔 그녀의 남편은 「전우」, 「형사」 등의 드라마로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배우 강민호 씨다. 그녀에게 대선배였던 남편 강민호 씨는 지난 1994년 타계했다. 남편이 떠나고 그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인생을 돌아보다, 그녀는 1995년 남편이 걷던 길을 마저 가기 위해 방송에 복귀했다.

"학창시절에 배우학원에 다닐 정도로 연기자가 되겠다는 집념이 강했지요. 남편이 떠난 자리를 어린 시절의 꿈으로 다시 채운 것 같아 흐뭇합니다. 이젠 아이들도 다 자라 모두 대학생이 되었어요. 남편 영향을 받아서인지, 세 아들 중 큰 애가 지금 연기 수업을 받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걱정됐지만, 이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데 내가 이해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다시 열심히 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

그 누구나 스타가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빛나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때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아닐까. 자기 인생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문지르고 닦으며 생의 흠집마저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들,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SBS**

글 | 이지혜 시인, **사진 | 김연식**

한여름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그녀

송혜교

언제나 풋풋하고 싱싱한 봄의 향기를 잃지 않을 것만 같았던 탤런트 송혜교. 그녀에게서 이제는 한여름의 싱그러움이 느껴진다. 그만큼 연기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녀가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에서 미혼모 아닌 미혼모로 연기변신을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주인공 다소 역의 그녀가 바로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닐까?

수호천사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누구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었으면 하고 꿈꾼다.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에서 송혜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고.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고.

여름을 닮은 그녀

칠월. 나무는 뿌리마다 물을 저장해둔다. 열매는 제 빛깔을 내기 위해 태양을 빨아들인다. 사람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자면, 지금 그녀는 칠월쯤에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장마가 끝나고 난 직후의 칠월. 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방금 색칠을 끝낸 그림처럼 선명하다. 사물의 경계가 자로 대고 그린 듯 뚜렷하다.

「순풍산부인과」에서 철딱서니 없는 막내딸로 나왔을 적만 해도 그녀에게선 여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내내 봄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부쩍 자라 있었다. 아마 그런

그녀의 모습을 새로 시작되는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에서 엿볼 수 있으리라.

「수호천사」에서 그녀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언니의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살아가는 '다소'라는 역을 맡았다. 웃음이 많아서 다소(多笑)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가 맡은 역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스무 살에 미혼모 아닌 미혼모가 되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진실 되게 살아가는 여자로 그녀는 지금 변신 중이다.

"이젠 연기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순풍산부인과」를 할 적에는 연기 생활에 회의도 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이 일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그 결과가 이번 작품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제가 왜 「수호천사」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시청자들이 행복해 하며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얼마 전, 그녀는 대만엘 갔다 왔다. 바로 그녀의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지금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단연 송혜교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가 몇 주 동안 1위를 기록하고, 영화와 드라마 출연 섭외도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순수로 만들어가는 연기세계

82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그녀는 스무 살이다. 작년에 세종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생이 되었다. 바쁜 스케줄 탓에 작년에 휴학을 한 상태. 그녀의 인기로 미루어 보면, 한동안 복학은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십 대에서 이십 대로 넘어오는 길에 그녀는 「행진」, 「순풍산부인과」, 「나 어때」, 「가을동화」, 「호텔리어」 등의 작품을 거쳤다. 따지고 보니 유독 SBS와 인연이 많다. "사람들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라구요.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잘 되어 돌아오니까 기뻐요."

그녀는 지금 다소 역에 푹 빠져 있다. "정말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대사도 한 번에 척척 외워진다니까요." 대본을 한 번만 읽어도 대사가 외워질 정도로 이번 역에 애정이 간다고 한다.

송혜교 하면 순수함이 떠오른다. 그녀가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잔머리를 굴려가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역을 한다고 상상만 해도 어색할 정도로. 그녀도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이미지를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를 드라마에 잘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어

떻게 변화할지 상상하는 것은 훗날로 미루자. 지금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선머슴 같은 역을 해보고 싶어요. 덤벙대고, 약간은 터프 하면서도, 순수한 면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이요."

그녀의 수호천사는 아프로디테?

그녀의 별자리는 물고기자리이다.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가 변신한 모습을 하고 있는 물고기자리. 아프로디테는 사랑, 미, 다산, 욕망의 여신이다. 모든 신들이 흠모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한다. 어쩌면, 그 아프로디테가 그녀의 수호천사인지도 모르겠다.

여름은 나무들이, 꽃들이, 열매들이 빛을 저장하는 달이다. 무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빛을, 바람을, 물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는 달이다. 지금 그녀는 거기 그 지점에 서 있다. 가을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녀의 푸름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이다. SBS

글 | 윤성희 소설가, 사진 | 김연식

초발심으로 TV 앞에 선

그때 그사람

장욱제

방송 시간이면 서울 시내가 한가했다는 전설을 지닌 70년대 최고 인기 드라마 「여로」의 주인공 장욱제가 TV에 돌아왔다. 지난달 21일 첫 방송한 SBS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에서 주인공 태걸(주현 분)의 죽마고우인 종태로 그는 24년 만에 시청자들 앞에 섰다.

"No Yesterday! 왕년의 장욱제가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배우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연기자로서 정상에서 내려올 길밖에 보이지 않았던 지난 77년, 그는 인기를 뒤로하고 훌쩍 제주도로 떠났다. 서른 일곱 살의 늦깎이 대리로 호텔에 들어가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다. 아직 '영구'의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인 그때, 힐끔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버스를 타고 장바구니를 든 채 바닥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6년 만에 사장직에 올라 사업가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그런 그가 이제 제3의 도전을 한 것이다.

"편하게 골프나 치면서 쉬지,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친구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지난 겨울, 연극으로 꾸민 「여로」를 무대에 올려 55회의 대장정을 해내고 자신감을 얻었다. "색씨야"를 외치던 더벅머리 '영구'를 아직도 기억하는 중장년의 팬들에게 향수 어린 선물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의 인생행로를 또 한 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처음 대본을 받아 대사를 할 때, 마음 같지 않게 굳어버린 몸과 발성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날로 스포츠 클리닉을 찾아 근육을 풀고, 밤이면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발성연습을 한 것이 꼬박 두 달. 그제서야 서서히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다.

"무대 맨 앞줄에서 흐느끼는 관객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전율이 오더라구요.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분을 가져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그를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한 것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달라진 방송 환경이 그에게 쉽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연습만 나흘씩 하고 컷트 하나까지 다 외운 상태에서 녹화에 들어갔는데, 그건 옛 말일 뿐이다. 카메라 감도 익히기 전에 순발력부터 요구하는 요즘의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시간도 걸렸지만,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잔소리 하지 말고, 시간 잘 지키고, 대사 빨리 외우고, 옛날 얘기 하지 말아야죠. 나이 들수록 더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왕따 당해요."

그런 자세 때문일까? 20대 연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할 줄도 알고 인터넷의 바다를 써핑하는 그는 젊어보인다.

이번에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의욕에 차 있다. 허영도 있고, 허풍도 떨지만, 사람 좋고 눈물 많은 종태라는 인물에 점점 정이 간다. 이 인물을 위해 오래전 '인물관찰 노트'를 꺼내봤다. 연기를 처음 배우던 시절, 다방에 앉아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양말 신은 모습, 담배 피우는 습관, 허풍떠는 말투까지 세세히 관찰해 적어놓았던 노트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 글자들 뒤에는 끓어오르던 열정까지 배어 있다. 지금 그는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있다.

"'저 사람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래전 '영구'가 전해줬던 웃음과 눈물을 주름 속에 담고 온 '좁쌀 종태'. 그 모습에서 먼 길을 돌아온 배우의 연륜이 보인다. **SBS**

글 | 최성은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프로그램 탐험 「도전! 1000곡」

세대를 초월한 일요일의 즐거움

연출 | 이동규, 진행 | 김승현, 이선진, 일요일 아침 8시 50분 방송

단 일 분도 방해받을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절대 수면 시간이 바로 일요일 오전일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단잠을 침범하는 즐거운 훼방꾼이 나타났으니, 「도전! 1000곡」이 그 주인공.

40여 회를 넘긴 지금의 「도전! 1000곡」에는 스타들의 노랫소리가 모닝콜이 되어 시청자들을 깨우기도 전에 눈 비비며 TV를 켜놓고 기다리는 골수팬들이 생겨났다. 무엇이 이들을 TV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

도전! 1000곡

삼대(三代)가 함께 보는 프로그램

이 시간 대 시청자 연령층 분포의 다양성에서 그 첫 고리를 찾아본다. 황금 주말의 여타 프로그램들이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채, 십 대 위주로 제작되는 현실 속에서, 「도전! 1000곡」은 그 소외된 시청자층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볼만한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출발했다. 초창기에는 중장년과 초등학생이 주시청자였으나, 현재는 청소년은 물론 그야말로 세대를 초월한 두터운 시청자층을 확보했다. TV앞에서 삼대(三代)가 모여앉아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시청자 의견에서, 세대 차이를 좁혀 나가는 사연들을 종종 접하곤 한다. "전에는 엄마가 머리맡의 강성훈 브로마이드를 떼버리곤 했지만, 「도전! 1000곡」에서 강성훈이 노래하는 걸 보신 이후론, '노래 잘하네' 하시며 CD 사라고 돈도 주셨어요." 실지로 강성훈이 조성모의 '가시나무'를 부르는 장면에 매료된 한 30대 주부가 강성훈의 '아줌마팬'이 되었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가수 최진희가 김범수의 '하루'를 멋지게 소화하여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고, 팬클럽이 형성되어 최진희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탤런트 최상학이 '99.9'를 유머스런 춤까지 선보이며 부르는 데야 어느 세대인들 놀라지 않겠는가.

소 닭 보듯 하던 각 세대 간의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도전! 1000곡」이 해내고 있는 셈이다. 어머니가 응원하는 스타, 그리고 딸이 응원하는 스타가 다를지라도 팬들을 열광케 하는 스타의 매력이란 근원이 같기에, 공감대의 기회가 주어지면 배타할 이유는 없는 법이다.

도전! 1000곡

최고 인기 비결은 원칙의 고수

「도전! 1000곡」에는 추억 속의 스타가 있다. 한창 때의 가죽 점퍼를 고스란히 걸친 채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전영록. 화려한 댄스 가수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은 이은하의 열정.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은 듯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원스럽게 열창하는 정수라. 암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그 날'의 주인공 김연숙의 색다른 모습 등. 현재 신세대들이 추앙하는 스타들 못지 않은 명성을 누리던 추억의 스타들이 「도전! 1000곡」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노래에 도전한다. 그들의 노래는 기성세대들에게 잔잔한 향수가 되어 설레임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빼놓을 수 없는 「도전! 1000곡」의 짜릿한 즐거움은 '의외의 스타 발견'에 있다. 개그맨 이혁재의 불타는 무대 매너, 모델 이종희와 탤런트 윤기원의 숨은 노래 실력과 끼의 발견. 선입견을 뒤집어 버리는 의외의 스타들을 발견하는 재미는 어린시절 소풍날의 보물찾기의 기쁨에 비길 만하다.

의외의 스타 발굴은 가창력 있는 신인의 등극과도 통한다. 가수 정일영과 소냐는 이미 순금한냥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기에 「도전! 1000곡」은 실력 있는 신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의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차치해 두고, 「도전! 1000곡」의 최고 인기 비결을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원칙의 고수라 할 수 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프로'를 표방한 만큼, 이 예외없는 원칙 고수는 진지함을 낳았다. 일례로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출연자들의 녹화 대기

모습의 진풍경을 들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수험생들 이상의 진지함은 제작진에게는 이미 익숙한 그림이 되어버렸다. 노래책은 물론, 인터넷에서 뽑은 가사, 노래방에서 연습하면서 녹음한 테이프까지 준비한 채로, 매니저와 코디까지 동원하여 틈틈이 가사 외우기 공부를 하는 출연자들의 감출 수 없는 진지한 모습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세대 차이를 좁히는 가교 역할

장승처럼 버티고 있는 빨간 경고등과 벼락같은 연기 폭죽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연륜 있는 가수 김수희와 임주리 조차 1차전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출연자 섭외가 쉬울 리 없다. 중장년층과 신세대층을 고루 배려하여 매주 6팀씩 출연자를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100 퍼센트 라이브 노래 게임쇼이기에 비록 스타라 할지라도 노래 실력 없는 가수들은 출연을 기피하는 상황인지라 회를 거듭할수록 제작진의 어려움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일종의 자부심이다. 어느 프로에선들 백남봉과 엄지원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겠는가!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건전한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긍지. 이를 조심스레 마음에 간직한 채로, 오늘도 「도전! 1000곡」 제작진은 기꺼이 일요일의 단잠 훼방꾼이 되고자 부산스레 움직인다. SBS

글 | 이은주 「도전! 1000곡」 작가, 사진 | 서창식

"편안하지 않습니까?"

연출 | 김찬웅, 진행 | 양진석, 매일 밤 12시 방송

양진석이란 이름을 들으면, 우선 모 TV프로그램에서 그가 보여준 마술에 가까운 인테리어가 떠오른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집이 그의 손만 닿으면 살고 싶은 곳, 들어서기만해도 몸과 맘이 편해지는 곳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감탄사가 나오곤 한다.

그런 그가 밤 열두시 라디오에서, 또 하나의 집을 만든 지 벌써 넉 달째다. 이번엔 그저 남의 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이름을 문패로 내걸었다. 건축가 출신의 DJ한테 얻어듣기론, 클라이언트의 생활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요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인테리어의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겉보기엔 소탈하며 따뜻해 보이는 그가, 알고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세련된 감각의 소유자란 것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LOVE FM, LOVE MUSIC」 역시 그런 DJ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노래가 나오다 80, 90년 대의 추억이 어린 곡들이 이어지고, 애인마저 없는 백수들의 처절한 삶이 이어지는가 싶으면, 친구의 남자친구가 좋아진다는 맹랑한(?) 중학생의 고백도 만날 수 있는 시간! 물론 "안방만 건조해서 고민인데…" 로 시작하는, 라디오 참여를 빙자한 무료 인테리어 상담에 더 열 올리는, 아줌마 청취자들의 든든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지만.

한마디로, 샵과 클럭비의 노래에 기분 좋게 발장단을 맞출 줄 알지만 들국화와 산울림의 매력적인 존재감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매일 밤 공복시, 꾸준한 복용? 아니 청취를 권하고 싶은 괜찮은 밤 친구가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이다.

조용히 잠을 청하고 싶을 땐 너무 시끄럽지 않아 좋고, 잠을 쫓으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가끔씩 오버하는 DJ 덕에 너무 처연하지 않아 좋다. 한 청취자의 얘기처럼 '우연히 들었지만, 웬지 자주 듣게 될 것 같은' 표나지 않게 정드는 방송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 시간의 매력은 건축가, 가수에 이어서 CF스타라고 요즘 자신을 소개하는 그가 어느 광고에서 했던 말을 빌자면 한마디로 이런 거다.

"편안하지 않습니까?"

글 | 류혜인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 작가

LOVE FM

고단한 몸에 달콤한 꿈을 초대한다

연출 | 전윤표, 진행 | 정지영, 매일 밤 12시 방송

치열한 한낮을 보내고, 지친 하루를 위로 받고 싶을 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 고단한 몸을 눕히고, 달콤한 꿈을 청하고 싶을 때, 그녀의 방송을 찾는다. 우리에게 그녀는 이런 존재가 아닐까?

솔직한 내 맘을 다 보여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정지영 아나운서. 그 누구의 사연 하나도 우연히 지나치는 법 없이, 꼼꼼히 살피고 정성스럽게 읽어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달콤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DJ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취자들의 애정은 인터넷에도 답지한다. 인터넷에서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청취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인터넷 동호회인 '달콤 목욕탕'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제작 현장 공개가 있었다. '달콤 목욕탕'의 회원은 3만여 명으로 사연 보내기, 모니터 등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위트 뮤직 박스」에서는 앞으로 현장 견학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영화 시사회나 편집앨범 CD 제작 등 청취자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별빛 가득한 밤엔, 닭살 러브스토리로 내일의 행복을 꿈꾸게 하고, 촉촉히 비가 내리는 밤엔, 빗소리에 눈물 흘릴 만큼 고요한 이별 얘기를 나누는 진실게임, 「정지영의 Sweet Music Box」. 이곳에는 말로 못 다한 마음을 전하는 '밤에 쓰는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같이 좋은 시들을 소개하는 '마음이 예뻐지는 시',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사랑하는 연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 마음을 신고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솔직함을 전하는 「Sweet Music Box」의 감성 클로징인 '내 마음의 일기' 등 청취자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이렇듯,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달콤 가족들의 거짓 없는 얘기와, 그들의 소중함을 아는 DJ 정지영이 있는 한 「Sweet Music Box」는 영원할 것이다. SBS

글 | 박현주 「정지영의 Sweet Music Box」 작가, 사진 | 서창식

소위 영화판에서 그이처럼 하루를 분주하게 사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영화전문지 「필름 2.0」기자로, 또 SBS POWER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의 '영화보고 싶은 아침'을 비롯, 여러 방송을 오가며 그가 벌이는 매일 매일의 활약은 실로 눈부시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

난참으로 편협한 인간이다. 나와 다른 사상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절대로 어울리지도 않는다. 게으른 탓도 있지만 솔직히 나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매우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동진도 나와는 매우 다른 인간임이 분명하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오동진과 내가 같은 영화를 보고나서 토론을 한다면, 십중팔구 각자 딴 소리를 할 게 분명하다. 이 정도면 내가 그를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원칙에 충실하려는 그의 고집과 타고난 근면함에 있다.

지난 80년대 학생운동의 투사로 옥고까지 치뤘던 오동진은 항상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살아왔다. 내가 알아온 지난 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비굴하거나 더러운 거래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바 없다. 몇 년 전 경제적으로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촌지를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가 정말로 존경스러워 보였다.

이처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 영화 「휴머니스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을 했다. 물론 그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양심을 믿기에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일 뿐이다.

소위 영화판에서 그이처럼 하루를 분주하게 사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영화전문지 「필름 2.0」 기자로, 또 SBS POWER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의 '영화보고 싶은 아침'을 비롯, 여러 방송을 오가며 그가 벌이는 매일 매일의 활약은 실로 눈부시다. 나처럼 게으른 인간은 그의 근면함을 지켜만 볼 뿐 절대로 흉내내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실했기에 그는 짧은 기간에 유능한 영화전문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솔직히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90년대 초반 그는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영화전문기자로의 길에 들어선 후 그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는 지난 몇 년 간 누구보다 많은 영화를 탐구하며 그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 덕에 이제 그는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인지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가 영화계의 강자들을 인터뷰하는 사이 나는 첫 영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결국 완성했다. 비록 그 작품이 흥행에 실패했지만 어쨌든 나도 이제 영화인이 됐다.

마지막으로 친구로서 내가 오동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서 가끔 한 번씩 만났으면 하는 것이다. 그냥 만나서 소주잔을 주고 받으며 영화도 얘기하고, 인생도 얘기하고, 딸들의 재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영화에 대해 나쁘게 얘기해도 괜찮다.

그도, 또 나도 이제 불혹의 나이이다. 내가 비록 편협한 인간이긴 하나 가슴 속 어느 곳에 친구 오동진을 위한 좁은 공간 하나쯤은 항상 비워둔 채 살고 싶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SBS

글 | 이무영 영화감독, 「접속! 무비월드」 진행자, 사진 | 서창식

도전하는 골퍼는 아름답다

연출 | 임형국, 박재홍, 장효석, 진행 | 송기훈, 임은하
제작 | SBS 골프채널
SBS 골프채널(케이블TV 44번) 목 · 금요일 밤 11시 방송,
토 · 일요일 저녁 6시 재방송

도전하는 골퍼가 아름답다. 핸디캡과 구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진 골퍼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SBS GOLF 빠제로배 도전 7기 대회」(이하 「도전 7기」)는 2001년 상반기 왕중왕전에서 골프를 시작한 지 갓 1년 된 아마추어가 왕중왕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골프채널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는 어떻게 구력 1년짜리가 10년을 넘긴 사람을 제치고 우승할 수 있으며, 그를 두고 왕중왕 타이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말이 많았다. 그러나 「도전 7기」 제작진들은 그런 반응들이 흐뭇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도전 7기」의 특집 프로그램이 골퍼들에게 화제를 몰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골프채널과 인기프로그램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주우승(도전왕)이 되었고, 또 상반기 결승인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컵을 안게 된 그 풋내기 골퍼는 일약 골프채널의 스타가 되었고, 그만큼 「도전 7기」의 이색 대결에 골퍼들은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9년 9월 4일 국내 최초 서바이벌 골프 프로그램이라는 얼굴로 세상에 태어난 이 프로그램은 장타대회를 시작으로 어프로치 샷, 트러블 샷, 아이언 샷, 벙커 샷, 퍼팅을 거쳐 니어핀 대회까지 모두 7관문으로 진행된다. 도전 기회는 각 관문별 세 번씩 주어지는데, 세 번의 기록 중 가장 좋은 기록을 인정하며, 각 관문 왕이 다음 관문과 경기 순서를 정한다. 각 관문 최하위 기록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며, 6관문까지 살아남은 2명의 골퍼가 니어핀 대회로 도전왕을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탈락이냐 통과냐, 냉철한 서바이벌 경기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골프의 묘미를 맘껏 즐길 수 있게 한다.

최고의 골프 서바이벌 「도전 7기」

매주 7명의 순수 아마추어들이 펼쳐지는 주대회는 늘 새로운 얼굴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전국의 실력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과 명문 골프장을 만날 수 있었던 전국 투어를 비롯해 비바람과 추위 속에 펼쳤던 제주 캠프,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시니어 대회, 우먼파워를 느낄 수 있는 여성 도전 7기, 각 분야 맞수 대결 팀대항전이 있다.

더불어 매번 특집을 마련해 특별한 경기를 선보였다. 2000년 개국 특집에서는 배석우 프로, 이상무 화백, 최세영 위원, 박현순 프로로 구성된 관록팀과 임진한 프로, 박주욱 프로, 김범수 아나운서, 임선욱 프로로 이뤄진 패기팀이 멋진 한판 승부를 펼쳤다. 또 100회 특집에는 맹상훈, 정승호, 이보희, 정혜선으로 구성된 타이거팀과 정욱, 천호진, 신승주, 이경순으로 구성된 백곰팀의 신명나는 경기를 보여주었다. 2001년 봄 프로그램 개편시에는 이은혁 위원, 신문선 위원, 황유하 위원, 박노준 위원으로 구성된 SBS 해설위원팀과 유협 아나운서, 한종희 아나운서, 손범규 아나운서, 노영환 전 아나운서로 이뤄진 SBS 캐스터팀의 즐거운 대결

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외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끈끈한 정을 골프로 풀어냈던 5월 가정의 달 특집 부자대회과 200회 특집으로 지난달 강원도 원주 파크밸리 골프클럽에서 펼쳤던 빠제로 프로 구단과 이동수 프로 구단의 실력 있는 맞대결 등 차별화된 구성과 특화 된 경기 방식으로 늘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출전한 아마추어 골퍼들은 700~800여 명, 예선전까지 포함하면 2,500여 명이다. 29세의 패기 있는 최창헌 선수에서부터 70세의 노장 장사숙 선수까지 수많은 골퍼들이 울고 웃으며 서바이벌의 스릴을 느끼고 돌아갔다.

또 하나의 묘미, '탈락자 인터뷰'

「도전 7기」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묘미는 임은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탈락자 인터뷰이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탈락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탈락자 인터뷰는 골퍼들 사이에 자주 회자된다. 급기야 탈락자들의 심경을 체험하기 위해 임은하 아나운서가 「도전 7기」에 출전했었고, 그 후 선수들의 입장에서 더욱 생생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문어 타법 스윙의 골퍼, 재치와 입담으로 빚어내는 웃음, 필드 위에서 뽑아내는 노래 한 가락…. 타 골프 프로그램과는 달리 골프를 모르는 시청자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골프는 신이 창조한 스포츠 중 가장 멋진 운동이라고 한다. 멋진 골프, 즐거운 골프가 있는 「도전 7기」. 200회를 맞아 다시 한 번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를 되새겨본다. 그리하여 언제까지나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알찬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을 기대해본다. SBS

글 | 박미애 「SBS GOLF 빠제로배 도전 7기 대회」 작가, 사진 | 조광희

고국과의 연계에 견인차 역할

「여인천하」, 「그것이 알고 싶다」, 「좋은 친구들」 등 인기 프로그램 방송

미주 지역에서도 이제 24시간 SBS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지역의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SBS 미주 위성방송이 7월 1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5일 새벽 2시) 개국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했던 SBS 미주 위성방송은 LA 소재의 AT&T에서 개국행사를 마련하고 첫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역사적인 이 지역 위성방송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저녁 셔라인 오디토리움에서는「2001 한국슈퍼모델선발대회 해외 결선」, 「SBS 넷 뮤직 2001」, 「SBS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등의 행사를 펼치며 미주 위성방송의 개국을 축하했다.

이로써 SBS는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하와이, 멕시코 지역의 현지 교민들에게 SBS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비교적 남부 지역인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교민들까지 미주 위성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다고 알려옴으로써 보다 폭넓은 시청권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미주 위성방송은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인천하」를 비롯,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남자 쇼」, 「좋은 친구들」, 「토요일은 즐거워」, 「초특급! 일요일 만세」, 「한밤의 TV연예」등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 외에도 「모래시계」, 「청춘의 덫」, 「순풍 산부인과」, 「김혜수 플러스유」 등 지나간 인기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미주 지역 한인들의 라이프 싸이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근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했다.

「SBS 8 뉴스」를 비롯한 뉴스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의 교양 프로그램은 실시간 방송되며 미국 내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 가능한 드라마와 일부 오락 프로그램에 한해 4~12주의 방송 시간차를 갖는다. 또 9월 1일부터는 「SBS 8 뉴스」와 「생방송 모닝와이드」가 생방송 된다.

SBS 미주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면 인터넷(www.iskycom.tv)과 전화(미국내 콜센터 전화 1-866-475-9266, 1-877-772-8600)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비용은 현지의 iskycom 영업 관계자(딜러)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설치 비용은 위성방송 수신에 가장 중요한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리모컨 비용과 장비 설치비를 합해 499.99$(세금포함)이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시청이 가능하다. 월 수신료는 기본이 월 19.99$(세금 포함)이며, SBS가 포함된 기본채널에 앞으로 서비스 될 영화채널, 음악채널, 종교채널 등 4개 채널이 추가된 프레미엄 패키지는 29.99$이다.

SBS 미주 위성방송은 미주 지역 교민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할 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2, 3세들에게도 고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고국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www.sbs.co.kr 대개편

SBSi는 지난해 5월 개편 이래 내적, 외적 환경과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이용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월 5일 사이트를 대 개편했다. 이번 SBSi의 개편은 현재 진행중인 SPD(SBS Platform Development)프로젝트를 적용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서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조기 구축하였다.

사이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디자인 부문에서는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하여 사이트의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한눈에 볼 수 있는 간편한 메뉴, 네비게이션의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하였으며, 메인페이지와 각 서브 페이지별 일관된 디자인으로 제작해 웹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다.

기능면에서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컨텐츠와 커뮤니티, 커머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마케팅을 구현하였으며, 개인화 마케팅의 기반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편이를 증대시키고 SBS의 선진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컨텐츠의 메인 카테고리는 TV, 라디오, 뉴스, 스타, 커뮤니티, 스포츠, 뮤직, 게임, 쇼핑, 라이프, 교육, 뷰티, 골프, 영화, 만화 등 15개이며, 각 채널별로 관련 CP 및 커뮤니티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

이번 개편과 함께 추가된 채널은 뷰티와 골프채널이며, SBS IR사이트가 신규로 구축되어 선보인다.

SBS 컨텐츠 019에 제공

이제 무선인터넷으로 SBS를 볼 수 있게 되었다.

SBS의 멀티미디어 자회사 SBSi는 LG 텔레콤, KTF와 제휴를 맺고 무선인터넷으로 SBSi가 제공하는 방송가 소식, TV 하이라이트 시청은 물론 SBS가 실시하는 가수, 연기자 등의 실시간 인기 투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SBSi는 지난해 6월 LG텔레콤, KTF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데 이어 25일부터 무선인터넷 이지아이(www.ez-i.co.kr)를 통해 SBS가 제공하는 각종 뉴스 및 TV 하이라이트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KTF의 무선인터넷 매직엔을 이용하여 「SBS 인기가요」, 「한밤의 TV연예」에서 실시하는 시청자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SBS의 각종 행사를 매직엔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무선인터넷 이지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SBSi의 기본 컨텐츠는 ●공지/이벤트 ●방송가 소식 ●TV 하이라이트 ●연예/오락 ●뉴스/스포츠 등 총 5개 부문.

이번에 SBSi가 제공하는 메뉴 중 가장 큰 특징은 SBS의 각종 방송가 소식과 프로그램 내용 등을 사전에 볼 수 있는 것 외에 「SBS 인기가요」에서 실시하는 시청자 투표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한편 LG텔레콤과 SBSi는 무선인터넷 방송 컨텐츠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네트워크서비스,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으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며 이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도 공동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SBSi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016, 011에도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며 "SBS의 컨텐츠를 가공하여 무선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채널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i 서비스 이용방법은 무선인터넷 이지아이(www.ez-i.co.kr)에 접속, 7.뉴스/인터넷카페 → 3.방송/잡지천국 → 1.SBS를 선택하면 되며 통화료 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다.

SBSi,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성공 기업으로 CNN에 보도

SBSi가 기존 배너 광고를 탈피하여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법을 시도,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룬 성공기업으로 CNN 방송에 소개되었다.

CNN은 SBSi가 TV와 인터넷, 커머스

(commerce)를 연계하여 새롭게 선보인 광고모델인 PPL 사업을 인터넷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쇠퇴해가는 인터넷 광고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과 흑자를 기록했다고 7월 14일 보도했다.

CNN은 SBSi가 현재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스타들을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과 초고속망의 일반화라는 기술적 상황을 잘 활용해 드라마에 등장하는 제품광고와 전자상거래를 접목시켜 PPL 사업방식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PPL(Products in Placement)이란 방송을 보면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각종 소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정보를 얻고 원할 경우 곧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 제작 방식이다.

CNN은 또한 SBSi가 이러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4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흑자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SBSi의 이러한 수익모델이 불황을 겪고 있는 인터넷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SBS美 건강 다이어트캠프」 개최

뷰티 전문 에이전시 ㈜SBS美는 7월 말부터 3차에 걸쳐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SBS美 건강 다이어트 캠프」를 개최한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캠프는 운동 프로그램 이외에 정신과 전문의, 한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영양사, 행동치료사, 운동 처방사로 엄선된 구성위원이 직접 개발한 다이어트 관련 강의, 드라마 테라피, 지옥 훈련, 심리치료 등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슈퍼모델로부터 스포츠 댄스, 휘트니스 등 갖가지 운동 방법을 배우며 다이어트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해 본 캠프는 사전에 건강 검사를 실시하여 일정 자격 조건을 통과한 신청자만이 참여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효과적 체중감량을 위해 4박 5일 동안의 캠프 기간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보톡스, 피부 스켈링과 점 제거 등 다양한 시술의 기회를 주며 추첨을 통하여 14명에게 해외 스파(SPA) 투어권과 체중 감량 클리닉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중·고·대 여학생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 캠프는 1차/7월 30일~8월 3일, 2차/8월 6일~8월 10일, 3차/8월 12일~8월 16일의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SBS美 인터넷 사이트(www.sbsme.com)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02-785-1400)로 접수하면 된다. SBS

행사내용

- 행사명 : SBS美 건강 다이어트캠프
- 일시 : 1차 – 2001년 7월 30일~8월 3일
  2차 – 2001년 8월 6일~8월 10일
  3차 – 2001년 8월 12일~8월 16일
- 장소 : 포천 베어스타운 리조트
- 목적 : 건강에 대한 가치 재인식
- 참여방법 : www.sbsme.com 또는 전화 (02-785-1400)을 통해 접수
- 문의 : (02) 785-1400
- 주최 : ㈜SBS美, 스포츠투데이
- 주관 : B&I Clinic, ㈜이세환 네트워크
- 협력 : ㈜그레이스 인터네셔널, ㈜카스 전자저울

✖ 참가자 경품 시상 내역 ✖

1. 참가자 전원

기념 티셔츠,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권

2. 베스트 다이어트

1위 : 보톡스 시술권 (성형외과)
2위 : 피부 스켈링권 (피부과)
3위 : 점제거 시술권 (피부과)

3. 각기별 시상품

댄싱퀸 : 경희부부한의원 다이어트 검사권 (1명)
행운상 : 바디클럽 세트 (1명)

4. 참가자 추첨상품

1등 : 뷰티테마여행권 (해외 스파 투어) 1매 (1명)
2등 : 마리프랑스 바디라인 상품권 1매 (3명)
3등 : SBS美 골드회원권 1매 (10명)

TELEVISION

CHANNEL 6

SBS

2001년 8월 1일 현재

MON 월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이별없는 아침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TV 특강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우리는 챔피언
6:15 드래곤 볼
6:40 @골뱅이
7:10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소문난 여자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대하사극 여인천하
10:55 오픈 드라마 남과 여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골프

소문난 여자

TUE 화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이별없는 아침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제작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우리는 챔피언
6:15 드래곤 볼
6:40 @골뱅이
7:10 휴먼TV 아름다운 세상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소문난 여자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대하사극 여인천하
10:55 두 남자 쇼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화요 야구

여인천하

WED 수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이별없는 아침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SBS 화제작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트랙 시티
6:15 포켓 몬스터
6:40 @골뱅이
7:10 별난 행운 인생 대역전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소문난 여자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
10:55 시트콤 허니! 허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SBS 수요 축구

수호천사

THU 목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이별없는 아침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실속 TV! 시선 집중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50 트랙 시티
6:15 몬스터 팜
6:40 @골뱅이
7:10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소문난 여자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드라마스페셜 수호천사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00:35 외화시리즈 프로파일러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FRI 금

AM

5:55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이별없는 아침
9:00 도전! 퀴즈 퀸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금요 컬처클럽
11:55 맛 기행 그 곳에 가면

PM

4:00 SBS 뉴스
4:05 동글동글 해롱이
4:15 마법의 섬 띠또 띠또
4: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리얼 코리아
5:45 물은 생명이다
6:15 유니 미니 펫
6:40 @골뱅이
7:10 이홍렬, 이경실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오늘의 스포츠
8:45 일일드라마 소문난 여자
9:15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9:55 기분 좋은 밤
10:55 뉴스추적
11:35 SBS토론 공방

AM

00:45 SBS 나이트라인
00:50 스포츠 와이드
00:55 시네클럽

진실게임

SAT 토

AM

5:55 토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세상을 만나자!
8:30 아침연속극 이별없는 아침
9:00 토요 스타클럽
10:20 이창섭 이미영의 행복찾기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00 SBS 뉴스
4:10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스페셜
5:10 대결천하
6:00 토요일은 즐거워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50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
9:50 장미의 이름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터닝포인트 사랑과 이별

AM

00:50 SBS 나이트라인
1:00 게임 쇼! 즐거운 세상

아버지와 아들

SUN 일

AM

5:55 일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00 월드컵 파노라마
8:50 도전! 1000곡
9:50 TV 동물농장
10:50 좋은 친구들

PM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 월드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3:50 SBS 뉴스
4:00 생방송 SBS 인기가요
5:00 호기심 천국
6:00 초특급! 일요일 만세!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50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
9:50 메디컬센터
10:50 영화 특급

AM

00:30 메모리스
01:20 SBS 나이트라인
01:30 SBS 스포츠 빅이벤트

도전 1000곡

주간 기본 편성표(2001년 8월 1일 현재)

LOVE FM

월 MON-SAT 토

AM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SBS 전망대
7:00 아침 종합뉴스
7:10 SBS 전망대
8:00 SBS뉴스 레이다
8:30 클릭! 경제사이트
8:45 명의에게 듣는다
9:05 손숙, 배기완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책하고 놀자

PM
12:00 낮 종합 뉴스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2:00 SBS 뉴스라인
2:20 송영길, 김민희의 한판 승부
4:05 문인숙의 노래세상
5:05 홍서범, 방은희의 홍방불패
7:00 저녁 종합 뉴스
7:15 최동철의 스포츠 닷 컴
8:05 안연홍의 나는 1035다
10:05 이지훈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00:00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
1:00 오종철의 라디넷 세상
2:00 Music Topia
4:00 쿵짝! 노래는 트로트

SUN 일

AM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7:00 아침 종합뉴스
7:10 이도학의 역사 기행
8:05 조경철의 자동차 25시
9:05 손숙, 배기완의 아름다운 세상
11:05 김찬식의 세상속으로

PM
12:00 낮 종합 뉴스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2:00 SBS 뉴스라인
2:20 송영길, 김민희의 한판 승부
4: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5:05 홍서범, 방은희의 홍방불패
7:00 저녁 종합 뉴스
7:15 최동철의 스포츠 닷 컴
8:05 안연홍의 나는 1035다
10:05 이지훈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00:00 양진석의 Love FM Love Music
1:00 오종철의 라디넷 세상
2:00 Music Topia
4:00 쿵짝! 노래는 트로트

월~토요일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FM 103.5MHz, AM 792KHz

POWER FM

월 MON-SUN 일

AM
5:00 김정일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곽영일의 팝스천국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타운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유정현의 2시 탈출
4:00 김형준의 팝스클럽 1077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8:00 채리나의 영스트리트
10:00 김동완의 텐! 텐! 클럽

AM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2:00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3:00 사운드 오브 뮤직

FM 107.7MHz

SBS 미디어넷 8월 하이라이트

SBS미디어넷은 SBS스포츠채널(http://sportal.sbs.co.kr), SBS골프채널(www.sbsgolf.com), SBS축구채널(http://sportal.sbs.co.kr)의 통합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사이트인 http://sbspr.sb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SBS 골프채널

케이블 TV ch44, www.sbsgolf.com

경 기	시 간	내 용
SBS GOLF 잭니클라우스배 9홀 매치플레이	8월 4일 밤 11시~12시	시즌 상금랭킹 1위의 최광수에게 8홀 매치플레이 3연승자가 도전한다. 지난 5월에 강욱순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 이후 두 번째 3연승의 영광을 안은 순수 아마추어 장흥수 선수와 최고의 프로골퍼와의 스킨스 대결은 장안의 화제. 이 프로그램은 본선 진출자 중에 3연승에 성공한 아마추어에게 최광수, 강욱순, 최상호, 임진한, 모중경, 신용진 프로와 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스킨스 게임을 펼칠 영광을 가질 수 있다.
2001 PGA Tour, PGA Championship 위성 생중계	8월 17일~20일 오전 3시~7시 30분	2001 PGA 투어 메이저 대회 최종전인 PGA Championship을 전 라운드 위성 생중계한다. 아틀란타 애클릭CC에서 4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 대회 챔피언이자 올해 마스터즈 챔프에 오른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데이비드 듀발, US오픈 챔피언 레티에프 구센이 모두 메이저리그 챔프에 도전한다. 특히 타이거 우즈는 지난해 메이저 2개 대회 우승기록과 함께 올해에도 연속 우승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2001 US LPGA Tour, 여자브리티시오픈 위성 생중계	8월 2일~3일 밤 12시~2시, 8월 5일~6일 새벽 2시~3시 30분	세계여자프로들의 메이저 대회인 여자 브리티시오픈을 SBS골프채널에서 전 경기 위성생중계한다. 이 대회에는 상금와 캐리웹을 비롯한 애니카 소렌스탐 등 유럽파 스타골퍼들의 대결이 펼쳐진 것으로 예상된다.
2001 US LPGA Tour, 퍼스트유니온벳시킹클래식 위성 생중계	8월 24일~27일 새벽 2시~5시 30분	지난해 김미현이 공동 5위의 위염을 이룬 퍼스트유니온벳시킹클래식을 전 경기 위성생중계한다.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하는 김미현을 비롯해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박세리와 박지은 등 한국군단이 총출전하며, 지난해 우승자 미켈 레드먼 등이 출전한다.

SBS 스포츠채널

케이블 TV ch30, http://sportal.sbs.co.kr

경 기	시 간	내 용
Samsung Fn.com 2001 프로야구 생중계 및 녹화중계	매주 화~일 오후 6시 20분~10시/ 밤 10시~새벽 1시	**8월의 프로야구 생중계 일정** • 1일 기아:SK(인천) • 2일 현대:한화(대전) • 4일~5일 삼성:현대(수원) • 7일, 9일 LG:삼성(대구) • 8일 현대:두산(잠실) • 10일, 12일(일) 두산:한화(대전) • 11일 기아:LG(잠실) • 14일, 16일 LG:롯데(사직) • 15일 삼성:두산(잠실) • 17일, 19일 한화:삼성(대구) • 18일 롯데:기아(광주) • 21일, 23일 LG:두산(잠실) • 22일 삼성:기아(광주) • 24일 기아:현대(수원) • 25일~26일 LG:한화(대전) • 28일, 30일 SL:한화(대전) • 29일 롯데:삼성(대구)
Samsung Fn.Com 2001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 첫 경기 생중계	8월 1일 오후 6시 20분~9시 20분	일본 원정을 끝내고 기아 타이거스로 돌아온 이종범의 첫 경기를 장식할 Samsung Fn.Com 2001 프로야구 '기아:SK'를 생중계한다. 해태 타이거스의 20년 명문구장의 힘을 이어받아 기아 타이거스로 출범하는 시기와 이종범의 첫 경기는 프로야구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된다.
쉘위댄스	금요일 오후 5시 50분~6시 20분	라틴댄스의 새로운 텍스트로 인기를 얻고 있는 「쉘위댄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한다. 특히 '댄스매거진' 코너에서는 댄스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라틴문화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라틴 속으로' 코너에서는 라틴카페 '바이아'를 찾아가 라틴댄스 동호회 회원들의 열광적인 모습을 소개한다. 한편 슈퍼모델 출신 김서희 씨와 라틴댄스의 대부 사리권 씨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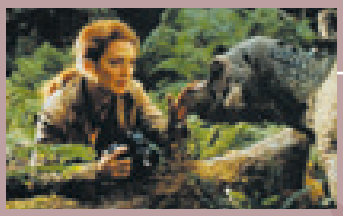
SBS 축구채널

http://sortal.sbs.co.kr

경 기	시 간	내 용
2001 나이키 올스타전 생중계	8월 5일 오후 6시 50분~9시	포항의 5연승 행진으로 독주를 막지 못한채 1라운드를 마친 K-리그가 팬서비스의 올스타전을 펼친다. 중부팀의 안양, 부천, 성남, 수원, 대전과 남부팀의 전북, 부산, 전남, 포항, 울산의 각 구단에서 베스트 11명을 먼저 선정한 뒤 7월 한 달간 투표를 통해 최종 11명씩 선수가 선발된다. 7월 말 현재 인기 투표는 김도훈(전북)이 선두를 달리고 이동국(포항)과 이영표(안양)가 뒤를 잇는다.
2001 POSCO K-리그 하반기 리그 생중계	8월 18일~19일 오후 6시 50분~9시	• 8월 18일 대전:포항(대전) • 8월 19일 전북:성남(전주) • 8월 22일 울산:대전(울산문수) *6시 20분 부터 • 8월 25일 부산:안양(부산) • 8월 26일 전북:부천(전주) • 8월 29일 성남:포항(성남) *6시 20분 부터
2002 월드컵 유럽예선 녹화중계	수~금요일 밤 9시 30분~11시 30분	2002 월드컵을 위해 유럽최강을 가리는 예선전을 SBS축구채널은 수요일~금요일 밤 9시 30분에 녹화중계한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축구강국이 남미에서 유럽으로 옮겨오는 현상의 기류를 직접 중계를 통해 감상할 기회가 될 것이다.
2001-2002 NFL 미식축구 프리시즌 녹화중계	8월 20일~21일 밤 12시~새벽 2시30분 (이후 매주 같은 시각)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식축구 NFL이 올해도 프리시즌을 시작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 휴스턴의 참여로 3개 지구 체제는 올해로 종식하고 내년부터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눠 4개 지구 체제로 갈 예정이라 올해의 경기가 더욱 주목된다. • 8월 20일 테네시:세인트루이스 • 8월 21일 볼티모어:뉴욕제츠 • 8월 27일 필라델피아:테네시 • 8월 28일 인디애나폴리스:미네소타

CINEMA

이달의 SBS 영화 특급 일요일 밤 10시 50분 방송



쥬라기공원2 – 잃어버린 세계(JURASSIC PARK II : THE LOST WORLD)

감독/스티븐 스필버그, 주연/제프 골드블럼 · 줄리안 무어, 방송/8월 5일, 담당PD/김박

쥬라기공원이 사고로 폐쇄된 지 4년여. 무언가 살아남은 것이 있었다. 인젠사의 해먼드(리처드 아텐보로 분) 회장이 이슬라 소르나섬의 B구역에서 은밀히 공룡들을 사육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공룡존재 사실을 전해들은 말콤 박사(제프 골드블럼 분)는 여자 친구인 사라 하딩 박사(줄리안 무어 분)와 함께 긴급 파견된다. 섬에 도착한 말콤 박사 일행은 이 섬에서 모종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눈치채고, 결국 거대한 티라노 사우러스 무리는 인젠사 사장 일당의 계획대로 샌디에고 항구에 도착하는데….

람보 2(RAMBO : FIRST BLOOD PART II)

감독/조지 P. 코스마토스, 주연/실베스터 스탤론 · 리처드 크레나, 방송/8월 12일, 담당PD/김하정

복역 중이던 람보는 월남전의 옛 상사 트로트먼 대령에 의해 석방을 조건으로 특수임무를 부여받는데 그 임무는 냉전지대에 잠입, 그곳에 갇힌 포로들의 사진만을 찍어오라는 것. 허나 포로수용소에 갇힌 옛동료를 만난 람보는 임무 내용을 위반, 동료를 직접 구출하지만 본부에서는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간에 고립된 람보는 적 게릴라 부대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린치를 당한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람보는 동료의 죽음에 슬픔과 분노가 폭발, 홀홀단신의 몸으로 일당천의 대 전투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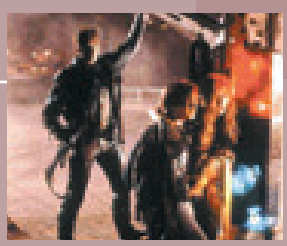
랜섬(RANSOM)

감독/론 하워드, 주연/멜 깁슨 · 르네 루소, 방송/8월 19일, 담당PD/김박

미국 4대 항공사 중 하나인 엔디버 항공사의 사장인 톰 멀른(멜 깁슨 분)의 외아들 숀이 유괴범에게 납치된다. 아들의 몸값으로 백만 달러를 요구받게 되고 즉각 수사전담반이 구성되지만, 수사팀과 아버지의 갈등이 커진다. 결국 FBI의 만류에도 아버지 톰은 자신이 직접 2백만 달러를 들고 유괴범을 만나러 가지만 작전은 무산된다. 구출작전이 실패하자 설령 돈을 준다한들 아들을 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톰은 공개수사를 결심, 2백만 달러를 몸값 대신 범인의 현상금으로 거는 모험을 감행하는데….

터미네이터 2(TERMINATOR 2 : JUDGMENT DAY)

감독/제임스 캐머런, 주연/아널드 슈워제네거 · 린다 해밀턴 · 에드워드 펄롱, 방송/8월 26일, 담당PD/김하정



서기 2029년 미국 LA. 심판의 날이라 불리는 1997년 8월 29일의 핵전쟁 이후 소수 인류는 살아남지만 생존자들은 또다른 악몽인 기계들과의 전투를 시작해야만 했다. 기계들의 우두머리인 스카이넷은 생존자들의 대표인 존 코너를 처치하기 위해 1991년의 LA에 강력한 터미네이터를 급파, 어린 존 코너를 없애려고 하고 존 코너 역시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를 보낸다. 문제는 그들 중 누가 먼저 오느냐는 것이다.

재즈페스티벌 II 리얼그룹 내한공연

행복을 전하는 목소리의 향연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로 따뜻함과 행복을 전하는 리얼그룹(THE REAL GROUP)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리얼그룹은 여성 보컬 2명, 남성 보컬 3명으로 이루어진 스웨덴의 재즈 아카펠라 그룹이다. 아카펠라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공연하는 음악장르.

이들은 모든 멤버들이 스톡홀롬에 있는 왕립 음악원에서 만났고 각각 혼자서 음악활동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음악실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리얼그룹은 맨하탄 트래스퍼나 테이크 식스가 받았던 CASA(미국 아카펠라 협회) 어워드를 여러 차례 받으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TV 광고에 그들의 곡이 삽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듣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리얼그룹의 공연은 한여름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 시 : 2001년 9월 9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티 켓 : R석/8만원 · S석/6만원 · A석/4만원 · B석/2만원
주 최 : SBS, (주)빈체로
문 의 : 02-599-5743

the real group